

주제어: 노동극, 노동자, 동일방직, 역할바꾸기, 코러스, 해설자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 연구

임지희*

<차례>

1. 서론
2. 구성과 인물군의 대립양상
3. 공연 형식의 특성
4.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의 공연 의미-결론을 대신하며

<국문초록>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는 1970년대의 민주노조 투쟁사레인 동일방직 사건을 다룬 연극이다. 이 연극은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만든 최초의 노동극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는 언론이 억압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겪은 사건은 사회적으로 은폐되어 있었다.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부당한 사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하였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연극을 선택하였다.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는 관객들이 지배계급의 사회적 모순을 폭로하는데 일차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연극은 긍정적인 인물로 노동자계급을 상징하고 부정적인 인물군으로 지배계급을 상징하고 있다. 지배계급은 한국 전통극의 풍자와 희화화의 방식을 사용하여 그들의 허위의식과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지배계급이 교묘하게 노동자들을 억압한다는 것을 폭로하는 극적 장치는 역할바꾸기, 코러스, 해설자이다. 이는 관객들에게 지배계급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기능을 한다. 지배계급이 지닌 모순에 대한 폭로는 관객들과의 공유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공유의식은 노동자들 스스로의 단합과 더불어 관객들과의 단합에 지향점을 두고 있다. 노동자들의 단합된 의지는 사회적 모순에 대한 투쟁의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연극은 노동자들 스스로가 연극의 주체가 되어 마당극정신인 상황적 진실성을 통하여 현장적 운동성을 담보해 나갔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것은 연극의 객체였던 노동자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당면한 문제를 민중들과 함께 고민하려고 하였으며 건강한 연극을 통하여 새로운 방향을 찾아나가려고 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후 공연된 노동극의 전사(前史)적 성격을 지닌 작품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 서론

1970년대부터 기층 민중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으면서 마당극이 등장하였다. 마당극은 소외된 계층의 문제를 주로 담고 있는데 단순히 소재의 변화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연극적인 형식을 창출해내면서 대중운동의 전망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마당극은 뚜렷한 주제의식으로 여기에 상응하는 민중을 관객으로 확보하면서 사회운동의 기능을 하게 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민중의 생활공간에서 공연되었다. 마당극이 과급력을 띠고 널리 전파되어 나간 것은 억압적인 시대를 극복하려는 민중의 출구로써의 기능과 매체통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당극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는 1970년대의 대표적인 민주노조 투쟁사레인 동일방직 사건을 다룬 연극이다. 1970년대 마당극에서의 노동현장 접근은 반도상사, 원풍모방, 동일방직 등으로 대표되는 민주노조의 조직적 기반과 연계되면서 시작되었다.

반도상사 연극반, 원풍모방 탈춤반, 콘트롤레이타 코리아 탈춤반, 동일방직 탈춤반은 마당극 초기 담당자들과 민주노조원들이 연계하여 활동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¹⁾ 70년대 노동계급문화의 새로운 상황 전개는 노동운동의 전개와 대학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민중문화운동이 노동현장으로 확대되는 것 등이 중요한 배경이 된다. 민주화된 노동조합은 여러 형태의 소그룹을 결성하여 조합원들의 의식교양을 위

* 안동대학교 강사

1) 라원식, 『80년대 노동현장 문화예술활동의 궤적』, 『문학예술운동』 3호, 풀빛, 1989.

한 활동들을 벌여왔는데 이때 문화소그룹이 결성되어 노동자들 자신의 계급문화를 찾아가려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동일방직, 반도상사, 원풍모방, 등의 민주노동조합과 가톨릭농민회 등의 단체를 중심으로 현장문화 집단이 생겨나게 되었다.²⁾ 마당극이 그 형성기에서부터 기층 민중운동과의 연대작업 속에서 연극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연극적 기반이 마련되었기에 여러 편의 연극작품을 창작하고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기층 민중운동과의 연대작업은 민중운동의 성장과 함께 노동자들이 자발적인 연극을 할 수 있는 물꼬를 트이게 했으며, 노동연극이 민중운동의 정서적 추동력의 중심에 형성될 수 있는 최초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본다면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가 가지는 공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는 김민규³⁾에 의해서 최초로 언급되었다. 이 글은 동일방직 사건의 개요와 당시 공연을 둘러싼 정황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작품의 구성과 인물, 사건의 특성 그리고 해설자 등이 작품에서 사용된 형상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김현민⁴⁾은 1970년대 마당극을 창작탈춤, 대학마당극, 현실참여극으로 분류해 놓으면서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를 현실참여극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작품의 대본을 담당한 박우섭과 연출을 담당한 김봉준의 대답을 통해 공연을 둘러싼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이 글은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행하여진 연극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에 대한 연민의 시각과 지식인적 휴머니즘을 탈피하였다는 점에서 이 작품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2) 박인배, 문화패 문화운동의 성립과 그 향방, 『한국민족주의론』, 창작과 비평사, 1985, 437면.

3) 김민규, 『동일방직 사건과 그 극적 형상화에 대하여』, 『민족극과 예술운동』 창간호, 민족극연구회, 1992.

4) 김현민, 『1970년대 마당극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2.

배선애⁵⁾는 1970년대 마당극을 서사극적 요소와 전통극적 요소의 결합이라는 측면으로 <진동아굿>, <함평고구마>, <덕산골이야기>,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를 분석하고 있다. 서사극적 요소와 전통극적 요소의 결합은 은폐된 사건의 전달은 물론 그것의 정서적 공감과 향유, 나아가 적극적 행동까지 유도하게 하는 장치들로 기능하며 이 두 가지가 매우 효과적이며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있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이렇게 위의 글들은 각각 나름대로 많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글들은 자신들이 이야기하려는 틀 속에서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사를 살펴 본 바와 같이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는 마당극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극은 노동자들 스스로 연극의 주체가 되어 상황적 진실성을 알리고 현장적 운동성을 담보해 나갔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이 작품은 이후에 공연된 노동연극의 전사적 성격을 지닌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마당극이라는 연극적 양식 속에서 공연되었기 때문에 마당극적 정신을 담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교집합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삶의 모습과 문제를 드러내는 방식에서 이 연극만이 가지는 독특한 지점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의 주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구성방식과 인물군의 양상, 공연상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 의미를 규명해 보기로 한다.

5) 배선애, 1970년대 마당극의 양식 정립과정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18집, 한국극예술학회, 2003.

2. 구성방식과 인물군의 대립양상

2.1. 창작배경과 창작과정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은 외국 자본을 주축으로 한 수출입국형의 외연적인 불균형 성장 모델을 채택하여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을 규정지었다. 국민경제의 대외의존은 심화되고 국민경제 내에서 산업간 기업 간의 분업관련은 보잘 것 없는 것이 되어 국민경제의 불균형을 가져왔던 것이다. 국가는 저임금을 유지시키기 위해 노동운동에 대한 억제적인 법률을 만들기도 하고 사회적 불균형의 확대를 심화되는 민중적 빈곤으로부터 분출하는 체제 도전적, 위협적인 노동계급의 여러 운동을 감소시키는 각종 제도적, 비제도적 정책을 구조화시켰다.⁶⁾ 동일방직 노동자들은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펼치게 된다. 이들은 1972년부터 결성된 민주노조를 통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회사 측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을 탄압한다. 회사 측의 탄압과 민주노조의 투쟁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다가 76년에는 ‘나체시위’ 사건을 겪게 되고 78년에는 ‘똥물사건’을 겪게 된다. 이 똥물사건으로 동일방직 민주노조는 사고지부로 처리되었고 노동의장단 4명이 모두 해고 조치되는 등 사실상 노조의 기능이 마비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해 3월 노동절 행사장에서 80명이 시위하였으나 조직행동대에 의해 무력으로 저지당하고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며칠 후 이들은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하였고 농성시작 10여일만에 정부 고위층의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인천의 사업장으로 왔으나 이미 124명이 해고되어 있었다. 이후 해고 노동자들은 복직투쟁을 계속 했지만 정부에선

오히려 ‘동일방직 해고노동자의 타 사업장 취업불가’의 조치를 취하였고 이들이 겪은 사건은 언론에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다.⁷⁾

1978년 2월부터 동일방직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은 도시산업선교회에서 해고 노동자들의 모임을 지속하고 있던 중 그들이 겪은 부당한 사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연극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그들 스스로 연극을 만드는데 모두 동의하였고 2개월 넘게 도시산업선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연극을 만들어 공연을 하게 된 것이다.⁸⁾ 이들이 연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77년부터 도시산업선교회에서 동일방직을 비롯한 노동자들에게 탈춤을 가르치는 장을 마련한 것이 계기점이 된다.

당시 마당극 운동 초기 활동가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 연합 탈춤반을 결성하고 있었다. 이 모임에서 노동자들에게도 탈춤과 마당극을 보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마당극 운동 초기 활동가들은 민주 노조원들이 학습도 하고 모임을 갖는 도시산업선교회를 통하여 민주노조원들과 연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박우섭이 대본을 다 쓰기로 하였으나 노동자들이 이 사건을 핵심적으로 가장 잘 안다고 의견을 모아 박우섭은 초안을 잡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기 역할의 대사를 정리해서 대본을 만들었다.⁹⁾

그렇기 때문에 연극경험이 있는 노동자들이 거의 없었더라도 여성노동자들이 특별히 대사를 외우지 않아도 사건이 진행되면서 저절로 대사가 나오고 이야기 틀거리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자신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자연스러운 연기가 이루어졌다.¹⁰⁾

노동자들과 마당극 초기 활동가들이 함께 연계하여 만든 작품인 <동

7) 김민규, 앞의 글, 65면.

8) 최연봉, 대담, 2009년 4월 28일. 최연봉은 공연당시 여공역할을 맡았다.

9) 김봉준, 대담, 2009년 9월 23일. 김봉준은 홍익대 탈춤반 출신이며 서울 대학 연합 탈춤반 회원이었다. 또한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의 연출을 맡았다.

10) 김현민, 앞의 글, 101면, 각주 122번.

6) 김대호, 『한국 노동자문화운동의 전개와 성격』, 『공동체문화』 3권, 공동체, 1986, 134면.

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는 78년 8월에 인천 가톨릭회관에서 하려던 공연이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9월 22일에 기독교 방송국 2층 강당에서 ‘고난 받는 동일방직 근로자를 위한 기도회’의 초청공연 형식을 빌려 공연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는 해고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만든 연극이다. <동일방직문제를 해결하라>는 이 시기에 노동자들의 대표적인 투쟁사례를 형상화한 유일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극을 만들어 공연하게 된 의도는 동일방직 사건을 극의 형식을 빌려 좀 더 세밀하고 정확히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유인물을 돌리고 관계기관을 찾아가고 회사 앞에 찾아가 농성을 벌이는 시간 외의 남은 시간을 활용하여 각자의 마음을 한 곳에 묶어두는 방법으로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¹¹⁾이었다. 즉 이들은 관객에게 자신들이 겪은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지속적인 투쟁을 하기 위해 서로간의 결속력을 다지고 새로운 투쟁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의도로 이 연극을 준비한 것이다.

2.2. 극적 효과를 위한 사건의 구성방식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¹²⁾는 5막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1막 1장 노동절 행사 2장 해설자가 나와 동일방직 사건에 관한 개요 설명
- 2막 1장 공장생활 2장 회사행정 3장 자취생활
- 3막 1장 섬유노조 회의 고두영 측 야유회의 대비 2장 자취생활 3장

11) 석정남, 『공장의 불빛』, 일월서각, 1984, 205면.

12) 민족극 연구회 편집부 엮음,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 『민족극과 예술운동』, 민족극연구회, 1992.

- 회사측 간부와 대의원 4장 벽보 앞에 모여선 여공들 5장 23일 대회 6장 경찰과 노무처장의 계약 7장 나체 시위에 관한 이야기
- 4막 1장 해설자의 동일방직노조의 성장과정에 대한 설명 2장~3장 사 고 지부 수습절차법 입안
- 5막 1장 똥물사건

이 작품은 동일방직 노동자들의 많은 투쟁 중에서 76년 7월 나체 시위가 있기 직전부터 78년 3월 노동절 행사장 시위까지 2년 정도의 기간을 다루고 있다. 2년 정도의 긴 기간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서는 사건의 중요한 대목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동일방직 해고자들이 연극의 주체가 되어 연극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체험한 사건들을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은폐되고 왜곡된 동일방직 사건에 대한 전모를 관객들에게 자세히 전달하여 알리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16장으로 이루어진 많은 사건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은 노동절 시위, 나체시위, 똥물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사건은 순차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다. 시간적으로 가장 나중에 이루어진 노동절 시위가 1막에 배치되어 있고 2막에 나체시위 이전에 대한 상황을 보여주며 3막 7장에 나체시위 사건을 5막에 똥물사건을 극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역행의 시간구성 방식은 극의 긴장감을 가속화시키고 인식과정을 진행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¹³⁾이다. 관객들은 해고 노동자들이 투쟁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게 되고 연극을 통하여 이러한 인식의 과정을 진행시켜 나가게 된다. 이 연극은 시간적으로 가장 나중에 이루어진 노동절 시위를 연극의 제일 앞에 배치시켜 놓음으로써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투쟁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리며 이러한 투쟁의 정당성을 지배계급의 만행에서 찾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13) 피터휘즈, 조상용 역, 『드라마 속의 시간-극적 긴장 조성의 기법』, 들불, 1994, 223면.

는 장면마다 위정자들과 회사와 어용노조의 본질을 폭로하는 부분이 많다.

노동절에 노동조합 산하 폭력집단이 정부고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슴 없이 폭행을 했으니 그 조직행동대란 누구란 말입니까? 더욱 알다가도 모를 일은 백주에 폭행이 벌어지고 있는 데도 노총과 정부는 언제부터 눈감아 주는 사이입니까? 노총이 무엇이길래 가족적인 노사관계 협조적인 노사관계가 어떤 것이길래 같은 근로자가 그 지경으로 끌려가는데 오히려 동일방직을 처벌하라며 노총가를 불러야 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135면)

노동절행사에서 동일방직 근로자들은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현수막을 들고 평화적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평화적인 시위는 폭력집단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만다. 이 폭력집단의 배후에는 어용노조와 회사, 정부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 동일방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노력에 대해 지배계급은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회사간부가 한 쪽에서 신호를 하자 저편에서 진을 치고 있던 남자들이 우르르 달려와 부지부장을 납치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도 몰려나가 부지부장을 구출해왔습니다. 그렇게 약아 빠진 납치극이 실패로 돌아가지 조합원들은 분개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가는 동료들이 늘어났습니다. 25일 1시경 50여명이 경찰대원과 회사남자들이 완전히 우리를 포위하고 죄어왔습니다. 조합원들을 만나체가 되어 시위했습니다.(152면)

동일방직 노동자들은 최저 생활도 유지할 수 없는 임금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 10시간 이상의 노동에 대한 부당함을 깨닫고 민주 노조를

만들어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보기로 결의한다. 그러나 지배계급은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회사 측이 민주노조 측의 부지부장과 타협 면담을 제시하였으나 이것은 민주노조 측의 부지부장을 납치하려는 술수임이 밝혀진다. 노조 측은 나체로 시위를 하면 자신들을 연행하지 못해 자신들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체시위를 하던 노조원들은 모두 연행되었고 300여명의 조합원들이 섬유노조에 찾아가 연행된 조합원들 석방하라는 농성을 했으며 이 농성덕분에 조합원들 모두 석방된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건은 노조지부 대의원 선거장에서 일어나게 된다.

해설자 : 그러면서 방화수통에서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똥을 꺼내더니 대의원들의 면상에다 바르고 옷에 문지르고 책상에 칠을 했습니다. (강패들 양동이에서 똥은 진흙을 꺼내 행패를 부린다. 집행부 대의원 달아나며 비명을 지른다. 청원 경찰은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다)(159면)

동일방직 회사 측은 민주노조 대의원 선거를 해도 된다는 의사를 밝히고 민주노조 측에서는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된 줄 알고 대의원 선거 준비를 했다. 그러나 선거전날 30여명의 청년들이 민주노조 선거사무실에 들어와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무실을 이수라장을 만든다. 급기야 남자직원이 사무실에 들어와 똥을 퍼붓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관객들은 회사 측의 음모를 알게 되고 사건 정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노동자들이 왜 투쟁을 끝까지 할 수 없는가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상상을 초월한 비상식적인 똥물을 퍼붓는 폭력을 맨 마지막에 배치하여 관객들에게 강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게 된다. 이것은 지배계급의 폭력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관객들은 연극을 통하여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되고, 지배계급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된다. 그리고 회사 측의 비인간적 모습과 처절하게 피해를 당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통해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정당함에 동의하게 된다.

즉 이 작품은 2년여의 동일방직 사건을 충실히 담아내면서도 관중에게 충격적인 장면을 뒤에 배치하는 비순차적 구성으로 동일방직 사건과 해고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관중의 이해와 공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¹⁴⁾ 시간적으로 가장 나중에 이루어진 노동절 시위를 앞에 배치해 놓음으로써 나체시위와 똥물사건은 과거화가 되는 것이다. 이 과거화 기법은 소외의 특수한 효과를 겨냥한 것¹⁵⁾이다. 나체시위와 똥물사건의 과거화를 통한 재현은 관객들이 노동절 시위를 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관객들이 분명히 통찰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절 시위 장면을 보면서 관객들은 노동자들이 노동절 시위를 하는 동기와 목적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관객들은 노동자들이 시위를 ‘왜’하는지에 대해 의식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므로 뒤에 재현되는 나체시위와 똥물사건을 보면서 강한 충격과 공감대를 가지게 된다.

또한 노동절 시위 장면을 처음에 배치함으로써 민주노조투쟁을 현재화시킨다. 이것은 똥물사건 같은 억압을 과거화시킴으로써 관객으로 와 있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 그 모습은 각각 다르지만 자신들이 겪었던 과거에 대한 억압을 회상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노동절 시위에서의 투쟁과 같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을 때까지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현재적 의미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의 비역행적 구성방식은 이렇게 점층적인 구성방식을 선택함으로써 관객들에게 노동자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14) 김민규, 앞의 글, 68면.

15) 송동준 외, 『브레히트의 서사극 유형적 고찰』,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22면.

2.3. 긍정적 인물군과 부정적 인물군의 대립양상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배층의 모순을 폭로하는데 유용한 인물군을 사용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긍정적인 인물군으로 상정하고 있고 지배층을 부정적인 인물군으로 상정하고 있다. 지배층의 부정적 인물군은 이름이 사실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다. 정동호, 고두영, 김영태, 박복레, 부사장, 생산과장, 새마을부장, 한차장 등 인물들의 이름이 매우 구체적이다. 이러한 인물설정 은 이 연극이 실제 사건을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지배층의 폭력을 구체화 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지배층이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온갖 간계를 꾸미고 제도적, 비제도적 방법을 동원하는 모습이 인물들의 사실적인 이름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극화되어 있는 것이다.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 공연에서는 지배층의 인물군은 탈¹⁶⁾을 쓰고 등장했고 노동자들은 탈을 쓰지 않고 연극을 진행했다. 지배층이 쓴 탈은 권력을 덧보이게 하는 역할¹⁷⁾을 했다. 이 연극은 지배층이 탈을 쓴 것과 노동자들이 탈을 쓰지 않고 연기함으로써 계층적 특징을 선명하게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탈을 쓰지 않고 연기를 함으로써 관객들과의 동일시의 효과를 얻는 반면에 지배층의 인물군은 탈을 쓰고 등장함으로써 관객들에게 막강한 권력의 힘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 것이다.

노무차장 : 예, 모든 이유가 바로 그 놈의 빨갱이들이 모여서 밤마다 지랄하는 도시산업선교회와 노조지부장이 여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대위원 선거를 기화로 여성 지부장을 남성지부장으로

16) 탈은 김봉준이 만든 창작 탈이다. 공연할 때 쓴 탈은 종이 탈이며 지배계급의 권위적인 성격과 회화성을 가미하려고 노력했다. 김봉준, 대담, 2009년 9월 23일.

17) 탈의 명칭 중 하나인 덧뵈기란 명칭은 덧 본다는 것으로 탈을 뜻한다. 심우성, 『한국 의 민속극』, 창작과 비평사, 1975, 72면.

대체 시키는 한편 도시산업선교회에 나가는 여공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철저히 막을 계획입니다. 지금 모든 계획이 철저히 비밀리에 집행중이니 염려 놓으십시오.

새마을부장 : 그리고 노무차장께서 말씀하신 임금인상요구는 급수를 4급에서 10급 정도로 늘려 겉보기에는 인상폭이 넓어 보이게 하고 결혼한 여공의 퇴사문제는 취사반이나 문방공으로 부서를 이동시켜 자진해서 사퇴를 하게끔 더욱 강화하겠습니다.(140면)

도시산업선교회에 나가 학습하는 노동자들을 비밀리에 파악하여 해고할 계획을 하고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를 겉으로는 하는 척 하면서 결혼한 여성 노동자들을 교묘히 해고 시키려는 음모를 꾸민다. 지배층의 음모는 탈을 쓰고 연기를 함으로써 관객들에게 막강한 이들의 힘이 전달된다. 그러나 노동자들에 대한 지배층의 논리는 매우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자계급을 ‘빨갱이’라고 폄하시켜 버린다거나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인상의 폭이 넓어보이게 하면서 부서를 이동시켜 자진사퇴를 하게 하는’ 권모술수만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에 대한 대처가 비논리적이다. 지배층은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그들의 권력을 과시하지만 여기에는 노동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논리성이 없는 대사는 지배층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배층은 이렇게 스스로 부당함을 폭로함으로써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지배계급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비판정신으로 사회적인 비정상을 폭로하고 야유하고 있다¹⁸⁾고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긍정적인 인물군을 부정적인 인물군에 대비시켜 보면 여공1, 여공2, 여공3 등으로 이름이 구체적이지 않다. 다만 집단적으로 유형화되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유형화된 인물의 설정은 사회적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인물군이 가지는 특징은 작품내적으로 연결되는 개연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의 대비 속에서 확보되는 개연성을 지니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에 맞게 분절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용이함¹⁹⁾을 지닌다. 이러한 인물군을 통하여 일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고 집단적인 투쟁의 모습도 그릴 수 있는 것이다.

여공3 : 애, 너 오늘 타이밍 먹지 않았니?

여공2 : 응, 그 약을 하도 먹었더니 이젠 효과가 없어.

여공1 : 해숙아! 한 눈 팔지 말어. 네 치즈가 3개나 죽었어.

여공2 : (놀란 듯이) 응 그래. (다시 살린다)

...(중략)...

여공3 : 소변 좀 보고 올 수 없을까?

여공2 : 조장이 눈을 부릅뜨고 소변시간을 기록하고 있을 텐데 넌 벌써 두 번째 화장실 가는게 야냐 좀 참아. 끝날 때가 다 되어 간다 (137~138면)

노동자들의 대사는 서로 바꾸어 해도 될 정도로 각각의 인물은 개별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대사가 현실감이 넘치며 생생하기 때문에 각기 다 살아있는 인물들처럼 보인다. 이러한 대사를 통해 관객들은 노동자들의 공장생활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노동자들은 탈을 쓰지 않고 연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상생활은 행동과 대사를 통하여 사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2막 3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자취 생활을 그려내고 있다. 이 장면에서는 낮은 임금으로 인한 자취 생활의 어려움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낙담하지 않는다. 적은 봉급을 아끼기 위해 자취방을 함께 사용하면서 서로 돕고 살아간다. 또한 평범한 젊은 여성들처럼 남성과 건전한 만남도 가지는 일상적인 모습도 담아내고 있다. 노동자들의 일상을 다루는 이러

18) 조동일, 『탈춤의 역사와 원리』, 기린원, 1995, 74면.

19) 이영미, 『마당극 양식의 원리와 특성』,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1996, 114면.

한 장면에서 그들은 모습은 불쌍한 존재로 나타나지 않는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탈을 쓰지 않는 노동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관객들은 그들의 삶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직시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모습을 밝게 그려내는 것은 노동자들의 존재를 불쌍한 존재로 천착하는데 연극의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이 힘들게 살아가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 연극은 노동자들의 일상생활 앞 뒤 장면에서 지배층의 음모와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지배층과 노동자들의 대립양상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그럼으로써 노동자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절약하며 살아가지만 그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는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있지 못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지배층이 그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일이다. 그들이 함께 힘을 수 있는 방법은 민주노조의 결성이며 노조를 통한 투쟁에 결의를 다지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가지는 갈등은 지배층에 대한 사회적인 갈등이기 때문에 투쟁의 장면에서는 집단적 인물군으로 편성되어도 별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의 인물군의 이러한 대립양상은 관객들이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지배층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에 함께 참여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3. 공연 형식의 특성

3.1. 관객과의 소통을 위한 배우관객과 무대의 활용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에서 주목할 만한 공연양식의 특징은 배

우관객²⁰⁾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관객 : 나체시위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해설자 : 그건 찌는 듯한 더위에 수 백명이 며칠씩 같이 있으면서 무더운 실내에서 크게 소리치고 노래부르니까 답기도 했지만 폭력으로 진압하려는 남자 경찰대원들과 회사남자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였죠.

어느 관객1 : 계획대로 잘 되었습니까?

해설자 : 처음에는 그렇게 서로 알몸으로 엉켜서 노래를 부르면서 항거하자 누구하나 감히 손대지 못합니다.

어느 관객 2 : 그 후 경찰들이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던가요?

해설자 : 잠시 후 마이크를 든 경관이 조용히 조용히 라고 소리치며 일장의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152~153면)

나체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는 해설자가 관객석에 앉아 있는 배우와의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나체시위에 대한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마당극에서 많이 보여지는 댓거리와 서사극적인 요소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²¹⁾ 전통극의 요소인 댓거리는 배우관객과 해설자의 대화는 관객들을 극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극에 적극적으로 개입된 관객은 배우관객이 정리한 질문에 동참하게 되고 관객들도 이러한 정리된 질문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공연에는 해고 노동자들이 직접 이러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관중들은 정확성과 사실성을 신뢰하게 되고 그 사건은 더욱더 호소력 있게 전달되었을 것²²⁾이다.

20) 마당극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배우관객은 공연담당자인 배우가 관객의 역할을 맡아 관객의 입장에서 극에 개입하는 것이다. 김재석, 「<원귀 마당쇠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21집, 한국극예술학회, 2005, 228면.

21) 김봉준, 대담, 2010년, 9월 25일.

22) 김민규, 앞의 글, 70면.

이렇게 극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관객들의 의식을 조직화시키기 위해 해설자와 배우관객은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 나체시위에 대한 의문점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풀어나간다. 즉 관객들은 이 사건에 대한 의문점을 배우관객들의 질문에 일치시켜 의식을 조직화시키고 체계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나체시위와 같은 충격적인 장면의 재현은, 실제 겪었던 당시의 시점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해설자로서 어느 관객으로 설정된 배우관객의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직접적으로 이 사건을 겪은 노동자들에게는 한 발 물러나서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 직접 이 사건을 겪은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시간을 가지게 함으로써 투쟁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또한 관객들에게는 사건의 충격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게 한다. 그것은 해설자와 배우관객이 사건을 정리하여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관객들은 노동자들이 왜 나체시위를 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설자의 이야기를 따라 정리할 수 있게 된다. 관객들의 이러한 객관적인 사고능력은 지배계급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관객과의 소통을 활발하기 위해서는 무대와 관객석의 거리를 없애는 것이 마당극 무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무대와 관객석의 경계선을 제거할 때 관객과의 적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며 소통도 활발하게 되는 것이다.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에서는 마당극의 열린무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무대를 앞뒤에서 활용하고 관객석에서 배우가 등장하는 등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이 작품은 앞무대만이 아니라 관중석 후미까지 무대로 사용하고 있고 관중석 중간에서 배우가 갑자기 뛰어나와 객석과 무대를 한꺼번에 휘젓고 다니는 등 공연장이었던 강당 전체를 무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²³⁾ 또한 시위장면에서는 배우들이

관객석의 중간 중간에 앉아 구호를 외친다. 또한 관객들을 시위의 동참자로 상정하여 극중 상황과 관객들과의 거리를 없애고 있다. 마당극이 무대와 관객석의 경계를 허물려하고 관객의 극중 참여를 유도하여 그들의 능동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공유의 정신을 현실화하는 대표적인 예가 된다.²⁴⁾ 이러한 공유의 정신은 관객들과의 일체감을 형성하는데 큰 몫을 차지한다. 관객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연극적 장치는 노동자들과의 동일시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3.2. 지배층을 희화화하는 역할바꾸기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에서 지배층이 교묘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억압한다는 것을 폭로하는 극적장치 중의 하나가 역할 바꾸기이다. 역할바꾸기는 단순히 배우의 수가 모자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연극적 재미와 의미까지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²⁵⁾ 이 연극에서는 여공역할을 맡은 배우가 역할을 바꾸어 지배층의 역할을 하고 있다.

김윤자: (좁 수줍은 듯 주저하다) 우리에게 훈계를 하던 경관은 몸집이 크고 금테안경을 끼고 어깨에 무궁화를 3개 째 단 무척 높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김윤자도 빨 안경을 끼었다. 그럴 듯하게 경관흉내를 내며 배역 안의 배역을 한다) (김윤자 경관흉내)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중략)… 사람을 죽인 사람이 옷을 벗고 있다고 해서 못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못 잡아가지도 않습니다. …(중략)… 즉결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과자가 되면 여러분 자신, 집안을

23) 김민규, 앞의 글 74면.

24) 김계석, 『마당극 정신의 특질』, 352~353면.

25) 이영미, 앞의 책, 240면.

물론이거니와 후손에게까지 그 장래를 망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권과자라는 빨간 줄이 이렇게 짝짝 그어집니다. (굿는 시늉) 나에게도 여러분과 같은 자식도 있고 동생도 있습니다.(153면)

이 장면에서는 노동자인 김윤자 역을 맡은 배우가 단순한 소품인 빨데 안경을 이용하여 경관으로 역할을 바꾸어 극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바꾸기는 연극에 놀이적 요소를 추가하여 극적 재미를 더해 주는 역할을 한다. 노동자들은 반복되는 노동과 쪼들리는 살림살이 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파분해졌고 이러한 일상생활의 파분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삶 속에서 놀이적 요소를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감독자의 잔소리를 들은 후에는 그의 걸어가는 모습이나 상투적인 특징을 흉내 내는 것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흉내 내기는 공동창작에 쉽게 접취되며 이것이 역할 바꾸기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²⁶⁾ 노동자들의 흉내 내기에는 지배층을 비하하는 요소가 있다. 지배층의 특정한 인물을 흉내 내면서 지배층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지배계급으로부터 받는 억압을 흉내 내기를 통하여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 흉내 내기는 지배층에 대한 작은 저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배층의 흉내 내기에서 연원된 역할 바꾸기에도 다분히 지배층을 비하하는 요소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여공배우가 지배계급의 인물과 역할을 바꾸어 했을 때와 지배층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했을 때 관객들이 가지는 지배층에 대한 인식은 다르다. 여공배우의 역할 바꾸기가 지배층에 대한 두려움을 반감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역할 바꾸기를 통하여 지배층을 비하시키기 때문이다. 이 연극은 이러한 역할 바꾸기를 통하여 풍자의 효과를 거둔다.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고 간접

26) 박인배, 공동체 문화와 민중적 신명, 『민족과 굿』, 학민사, 1987.

적인 풍자의 방법을 선택하는 이유는 비판을 가하고자 하는 자의 힘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자보다 월등히 약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공격과 교정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는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²⁷⁾ 풍자를 통한 비판은 관객들에게 재미를 줄 뿐만 아니라 지배층이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인식은 단합된 힘으로 지배층에 대항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의 연극담당자들은 탈춤이 지니는 많은 전통적인 요소 중에서 풍자와 비판정신에 주목하였고 이것을 연극에 수용하여 지배층에 대한 비판을 강화²⁸⁾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역할바꾸기는 풍자의 방식 중에서 지배층을 희화화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과장되고 우스꽝스러운 몸짓을 사용하고 논리에 맞지 않는 대사를 함으로써 지배층을 희화화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지배층이 거대한 존재라는 인식을 깨트리게 된다. 지배층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낙관적 미래를 가져올 수 있다. <동일방직문제를 해결하라>에서의 이러한 역할바꾸기는 노동자들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담고 있는 것이다.

3.3. 정서적 향유를 위한 코러스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는 마당극에서 최초로 코러스를 사용한 공연이다. 코러스는 작품에 총 5번 등장한다.

코러스 : 노동자 고혈짜는 기업주들 거동보소. 시간제다 노동이다 작업 목표 정해 놓고 목표달성 못할 때는 불량노조로 낙인찍어 갖은 모

27) 김제석, <일체면회를 거절하라>와 30년대 풍자극, 한국극예술학회 편, 『송영』, 태학사, 1996, 175면.

28) 김봉준, 대담, 2009년 9월 23일.

용 갖은 구박 해고까지 일삼으니 과중한 작업량 무순수로 다채우
라...(중략)... 종업원들 상호간에 작업전쟁 붙여놓고 잘하면 잘할
수록 목표량은 높아가니 시일이 지날수록 작업은 고되어서 옆자리
얇은 벗과 말제대로 할 수 없고 점심시간 휴식시간 고스란히 빼앗
기네(140~141면)

코러스는 관객들에게 익숙한 3·4조 4·4조의 율격으로 되어 있다. 코
러스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지배층에 대한 비판을 내린다. 회사간부들
이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어떻게 착취하는가에 대한 폭로와 이로 인해 노
동자들이 갖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코러스 : 눈물이어 야원불에 흐르는 눈물이어. 포도신이 부어올라 못소
리도 안나오고 타는가슴 억울함에 눈물만이 흐르누나...(중략)...
공순이 공돌이라 놀리는것 서러운데 돈주고 고용했음 노동력만 고
용했지 사람까지 사들이고 인격까지 사들였소(145면)

회사 측의 대의원이 노동자를 찾아와 대의원 투표 때 민주노조의 지부
장을 불신임해 달라는 매수에 노동자들이 가지는 입장을 밝히는 코러스
이다. 노동자들이 가지는 고통은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오는 고통도 있지만 이렇게 모든 문제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지배층
에 대한 정신적 고통도 들어 있는 것이다. 민주노조의 외해를 위하여 지
배층에 매수된 회사 측의 대의원들은 앞장서서 노동자들을 억압한다. 그
러나 여기에 대한 노동자들의 태도는 확고하다. ‘가난한 근로자지만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근로자의 양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심
할’ 따름이라는 것이다. 노동자의 양심은 돈으로 팔 수 없으며 이러한 것
은 자존심의 문제이다. 노동자들은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생활
하려고 노력했고 민주노조를 만들어 투쟁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찾으려
는 권리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으려

했던 것뿐이다. 돈으로 그들의 양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배층은
노동자들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준 결과가 된다.

코러스 : 노사간의 싸움에 정부가 무어길래 사법부가 무어길래 회사측
편을 들어 노동조합 방해하나. 우리의 혈세로 유지되는 국가권력
기업주 편을 들어서 노동운동 억누르니 이 정권은 과연 누구 위한
정권인가 5.16직후 어용노총 만들더니 그마저도 못믿어워 단결권
을 박탈한 후 도시사의 행정간섭 법정에 효력정지 이빨저빨 믿고
어용노조 제멋대로 길길이 날뛰누나(148면)

민주노조와 회사 측의 대립에 국가권력이 관여하여 기업주와 결탁하
여 노동운동을 억압한다는 내용이다. 국가권력의 힘을 등에 업은 기업주
는 어용노조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어용노조는 노동자들에게
는 ‘산업민주 완전실현 위해 최선을 다한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회사
측의 부당한 처분에 ‘꿈쩍달짝 짹소리도 못해보고’ 당하는 허울 좋은 노
조가 되어버리고 만다. 회사의 사주를 받은 어용노조는 제대로 노동자들
의 권익을 결코 옹호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코러스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다.

코러스는 지배층에 대한 비판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코러스 : 장하도다 인천의 동일방직 여공들아. 회사측의 감금 뚫고 기
속사서 뛰쳐나와 수도까지 끊긴 속에 1천명이 사흘농성 기동경찰
탄압에도 알몸짓에 저항하는 눈물겨운 투쟁끝에 동료들이 풀렸구
나...(중략)... 동일방직 꼬갈이 여공들아 장하도다 노동자의 타오
르는 영원한 활화산이어라 (155면)

나체시위를 하다가 노동자들은 모두 연행되었고 연행된 동료들을 석
방하기 위해 ‘300여명의 조합원들은 서울에 있는 섬유노조로 올라가 연

행된 동려들을 석방하라'고 농성을 한다. 결국 이러한 시위를 통해 동료들이 석방된다. 이 코러스는 석방된 기쁨과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함께 힘을 합치면 언젠가 완전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코러스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취한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지배층을 비판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열악한 현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기도 한다. 또한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코러스를 장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시켜서 관객들에게 앞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마무리와 평가를 한다. 코러스의 이러한 마무리와 평가는 관객들의 정서를 한 곳으로 모으는 역할²⁹⁾을 하게 되는 것이다.

3.5. 다양한 기능의 해설자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는 2년이라는 긴 투쟁 속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담고 있다. 이 연극에서 많은 사건들을 압축하고 역순행적인 시간구성에 대하여 실제 사건의 순서를 정확히 짚어 주는 역할을 해설자가 하고 있다. 이 연극에서 해설자가 다양한 역할과 기능으로 활용한 것은 2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진행된 동일방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대화할 수 없다는 극적 제한과 관련된 것으로 이에 따라 해설자는 자연스럽게 사건전체의 진실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전지적 인물이 된 것이라고³⁰⁾

29) 노래는 '희곡적 차원' 위에서 극적인 사건진행을 중단시키고 이를 해설하고 성찰하는 '시적인' 또는 '철학적인' 차원을 이룬다. 따라서 노래는 단선적인 극적 사건진행에 다른 차원을 부가함으로써 사건진행을 입체화시키고 반회상적인 기능을 갖는 '작가의 해설'이다. 이는 희곡적 사건진행 차원에서 다른 등장인물을 상대로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결국 관객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송동준 외, 앞의 글, 154~153면.

30) 배선애, 앞의 글, 209면.

할 수 있다.

해설자 : 바로 전에 보신 것은 지난 3월 10일에 있던 노동절 행사였습니다. 그 당시 행사에 참석하신 분은 다 보셨겠지만 동일방직 여성 근로자 80여명은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자기들의 문제를 노동절 행사 때 호소해 보려고 프랭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 (중략)... 이렇게 오랜 싸움에서 남은 것이라고는 124명의 해직 근로자입니다. 이제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은 산업선교회 지하실에서 함께 살면서 복직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의 싸움이 끝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이 연극을 하는 것은 우리의 해직이 부당하였다는 것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요 몇 년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생활을 보여 줌으로써 과거의 생활을 돌이켜 보고 반성하고 앞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위해 여러 관객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135~136면)

노동절 행사 장면 바로 다음에 해설자가 등장하여 노동절 행사에서 동일방직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해설자의 사용은 짧은 시간 안에 관객들에게 실제 사건을 사실적이며 정확하게 알리는 가장 적합한 극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관객들은 해설자의 설명을 통하여 사건의 정황을 알게 되고 이 연극이 다루어질 내용을 미리 인지하게 된다. 관객들은 '여러 관객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라는 해설자의 대사를 따라 연극에 관여하기 시작한다. 해설자의 대사 속에서 동일방직 문제가 무슨 사건인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획득한 관객들은 이 사건이 왜 일어났으며 노동자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갔는가 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해설자 : 동일방직 여성근로자들이 단합하여 권익옹호를 위해 주권행사를 하는 것이 하루 이틀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움

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동일방직 노동조합의 성장과정을 잠시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3년 전 1945년 3월 최극석, 김병학, 김영석씨 등이 중심이 되어 그 당시 이들이 동양방직 노동조합이 운영되면서 노동자들의 권익옹호와 끈질긴 투쟁을 했습니다. …(중략)… 77년은 그 전해에 비해 큰 소동없이 지냈고 그 다음해 78년 새해를 맞아 대의원 선거를 몇 달 앞당겨는 1월이 되고 있었습니다.(155~156면)

해설자는 1945년에서 1977년까지 동일방직 민주노조가 결성되어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투쟁한 과정을 압축적이면서 사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정확한 연도와 사실적인 이름을 거론할 수 있었던 것은 공연담당자들이 직접 겪은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성과 정확성은 관객들에게 사건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해 주며 이들이 이야기하려는 주제를 호소력 있게 전달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극이라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많은 사건을 일일이 보여 주지 못 하는 것을 해설자를 통해 이야기함으로써 관객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설자는 극의 흐름을 막아 사건의 정확을 정리하여 관객들이 극에 대한 거리두기를 하는 역할을 한다. 이 거리두기는 관객들이 극에 몰입되는 것을 막아 사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그것은 사건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78년 대의원 선거를 몇 달 앞 당겨둔 1월이 되고 있다’는 해설자의 대사는 다음에 이루어지는 마당이 대의원 선거에 대한 것임을 관객들에게 알려 준다.

관객들은 이러한 정보를 듣고 연극을 보면서 관심을 ‘무엇’에서 ‘어떻게’라는 문제에 쏠리게 한다. 말하자면 단순한 소재적인 것에서 그 절차와 판단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³¹⁾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멈출 수 있는 사건을 사회적인 차원으로 끌어 올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

31) 송동준 외, 앞의 책, 153면.

또한 해설자는 극의 진행에 관여하기도 한다.

(해설자가 상황설명을 하면 뒤에서 그 광경이 재현된다)

해설자 : 2명의 똥통을 든 남자들은 투표하러 들어서는 여성 근로자들에게 닥치는 대로 똥을 바르고 문지르고 귀구멍에 처넣고 넓적다리엔 묻히고 젓가슴에 쑤셔 넣었습니다.

남자 : 이 쌍년아, 똥이나 먹고 정신 차려라.

여공 : 으악! (비명소리)

해설자 : 회사의 사주를 받아 지부장 후보에 나선 박복레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박복레 : (객석에서 갑자기 일어나며) 저 년에게 먹여라.

해설자 : 겨우 달아나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여공에게까지 똥걸레를 휘둘렀습니다. 그래도 직성이 안풀려 달아나는 여공에게 똥통을 머리에 뒤집어 씌웠습니다.

여공3 : 경찰 아저씨, 도와주세요.

경찰 : 야 이 쌍년아 입닥쳐. 이따가 말릴거야.(160면)

동일방직 민주노조 투쟁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인 똥물사건을 해설자의 상황설명과 배우들의 재현을 통하여 장면화하고 있다. 이 장면에서는 다른 마당에서 모든 사건의 진행과정을 혼자서 설명하는 것과는 방법을 달리한다. 해설의 개입으로 배우들의 대사가 짧아지고 해설자는 생중계를 하는 것처럼 긴박하게 상황을 이야기한다. 해설자는 등장인물과 교체되어 똥물사건에 대한 긴박감과 충격을 관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해설자의 이러한 개입은 극의 템포를 빨리 하여 관객들에게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연극을 통하여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노동자들과 인식을 같이 하며 투쟁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한 관객들은 이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분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극의 빠른 진행은 이러한 분노를 최고조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공유

의식을 바탕으로 한 분노는 관객들과 노동자들과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투쟁의 의지를 실천화하는 정점³²⁾으로 작용하고 있다.

4. <동일방직문제를 해결하라>의 공연 의미-결론을 대신하여

1970년대 한국사회는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수출주도의 고도성장 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얻으면서 급속하게 대중사회의 성격을 띠게 된다. 대중사회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은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상품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중사회는 문화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분리시켜버린다. 문화의 생산자는 독점자본에 의해 이루어지며 대중들은 문화의 소비자로 밀려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중문화를 비판하는 일반적 인 논지는 대중문화의 생산자가 대중의 저급한 욕구에 영합하여 향락주의를 조장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오락적 대중문화는 대중의 정치적 관심을 희석시키고 탈정치화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의 모순을 인식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하여 현재의 사회체제를 유지, 강화하게 된다는 것이다.³³⁾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피지배층의 ‘살아있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극은 노동자들이 문화적 실천을 통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능동적 모습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연극의 출발점은 당대의 연극으로부터 민중들이 소외되어 있는 현상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민중의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그들의 표현방식에 기반을 둔 새로운 연극을 찾고자 하는

32) 연극이 클라이막스에 이르러 오물세례사건이 재연되자 노동자들은 통곡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연극하는 사람도 울고 관객도 울고 강당 안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빼어 사무치는 분노가 폭발한 노동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강당 안을 뛰쳐나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도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동일방직 복직투쟁 위원회 엮음, 『동일방직 노동조합 운동사』, 돌베개, 1985, 195면.

33) 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9, 145면.

비판의 정신에서 출발한다는 마당극 정신³⁴⁾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마당극이 문화의 객체인 민중을 문화의 주체로 일으켜 세워 민중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연극화하고 이를 통해 문제의 해결까지도 꾀하는 민중연극³⁵⁾으로써 새로운 연극을 모색하여 나가던 출발점에서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의 연극담당자들도 함께 그러한 점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는 동일방직 노동자들이 억압되고 통제된 사회에서 자신들이 겪은 은폐된 사실을 알리고 관객들에게 공유하게 하며 집단적 저항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된 연극이다. 이 연극이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만든 연극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노동자계급이 기존체제에 대항하는 능동적인 활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소외에도 불구하고 삶의 밑바닥에 깔린 사람들이 발산하는 건강한 생명력은 진하고 줄기찬 것이다. 작은 몸짓, 짧은 신음소리 숨은 폭발적인 힘,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잠재해 있는 무진장한 저력을 뿔뿔이 드러내는 것, 이것이 시위의 연극이다.³⁶⁾

70년대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연극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건강한 생명력에서 출발되어진 것이다. 이러한 건강한 생명력은 사회적, 현실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한다. 노동자들은 연극을 통하여 자신들의 삶을 표현하면서 시대적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모순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모순을 자각해 나가게 된다.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이 연극을 만드는 과정은 삶의 돌아보기이고 성찰이 되는

34) 김재석, 마당극 정신의 특징, 『한국극예술연구』 제16집, 2002, 342면.

35) 정지창, 『서사극 마당극 민족극』, 창작과 비평사, 1988, 83면.

36) 임진택, 새로운 연극을 위하여, 『민중연희의 창조』, 창작과 비평사, 1990, 41면.

것이다. 노동자들의 이러한 각성은 자신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한 주체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획득하는 원리로 작용하는 원천이 된다.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의지를 획득함으로써 해 지배권력의 이데올로기적 폭력에 대항하는 힘을 모을 수 있다.

지식인들이 짠 현장 연희물은 현장의 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많다. 의도자체가 노골화되어 있거나 관념적 허상에 사로잡혀 실험적인 연극으로 머문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실패의 원인은 생산 담당층과 지식인이 다른 데 있다. 그들은 삶을 해석할 때 관념적 허상이 아닌 체험적 실체와 경험적 사유에서 출발해야 되었던 것이다.³⁷⁾ 그러나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는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진 연극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리얼리티를 확보하는데³⁸⁾ 용이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극에서 보여지는 노동자들의 일상생활의 장면은 삶에 밀착되어 있고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인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투쟁과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극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러한 극 진행은 연극에 리얼리티를 부가하여 현장적 운동성을 강화시킨다. 노동자들이 지배계급의 억압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과 고통을 드러내고 민중들과 함께 고민하려고 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는 장을 건강한 연극을 통해 만들어 나가려 했다는 점은 문화적인 관점에서도 많은 의미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극은 노동자의 리얼리티를 생생하게 담아내고 비판정신을 담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 공연을 계기로 각계의 민주인사들이 동일방직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³⁹⁾ 뒤이어 다른 노동조합에서도 자신들의 이야기와 투쟁을 담은 연극이 공연되어졌

37) 김성진, 『삶과 노동의 놀이』, 『문학과 예술의 실천논리』, 실천문화사, 1983, 139면.
38) 이것은 대본창작 과정과도 연결 지어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공동창작이다. 10여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도시산업선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대본을 썼다. 연출은 이 대본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하였다.
최연봉, 대담, 2009년 4월 28일.
39) 최연봉, 대담, 2009년 4월 28일.

다.⁴⁰⁾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는 탈춤이 지배계급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풍자의 원리를 극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것은 대학탈춤반 출신의 지식인과 결합하여 공연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대학 탈춤반에서 탈춤을 공부할 때 가장 관심있는 부분이 지배계급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비판을 가하느냐⁴¹⁾였다. 결국 이들이 선택한 것은 풍자의 원리였다. 이러한 풍자는 사회가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모순 속에서 지배층들이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가를 드러내고 이에 대한 비판과 비웃음을 공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공유의식을 관객과 함께 가지려면 관객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관객과의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이 연극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배우관객이며 마당극에서 사용되는 열린 무대이다.

또한 이 연극에서 탈춤이 지니는 전통적인 요소와 더불어 비판정신을 배가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장치가 해설자와 코러스이다. 탈춤의 전통적인 요소만으로는 리얼리즘을 나타내기 부족했기 때문에 서사극에서 사용하는 해설자와 코러스를 전통적인 요소와 함께 사용한 것이다.⁴²⁾ 서사극적인 요소인 해설자와 코러스의 사용은 관객들이 극에 몰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소격효과를 가져 온다. 이러한 소격효과는 관객들이 사건에 대한 비판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전통적 연극의 자질이든 유입된 연극의 자질이든 일단 마당극의 ‘마당’으로 모여 들면 그곳에서 변형이 일어나고 독창적으로 재생산 된다.⁴³⁾ <동일방직

40) 이 작품 이후에 원풍모방, 콘트롤데이터, 해태제과 노동조합에서 연극을 만들고 공연하게 된다.
41) 김봉준, 대담, 2009년 9월 23일.
42) 이것은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의 연출을 맡았던 김봉준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당시 대학의 탈춤반에서는 탈춤의 사회비판적인 기능과 연극의 사회적 기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브레히트의 서사극에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브레히트가 연극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봉준, 대담, 2009년 9월 23일.

문제를 해결하라>에서는 전통적인 요소와 서사극적인 요소가 절묘하게 어우러지게 하여 주제를 전달하는데 입체감을 더해 주고 있다. 전통적인 요소와 서사극적인 요소를 잘 융합하여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고 밀도 있게 전달하고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사건의 전모와 그 이면을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관객들에게 공통된 분노를 가지게 하며 저항의식의 차원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배이데올로기의 허위의식을 폭로하고 있으며 민중들과 함께 연극의 마당을 대항해게모니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민족극 연구회 편집부 엮음,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 『민족극과 예술운동』, 민족극연구회, 1992.

단행본 및 논문

김대호, 「한국 노동자문화운동의 전개와 성격」, 『공동체문화』 3권, 공동체, 1986.
 김민규, 「동일방직 사건과 그 극적 형상화에 대하여」, 『민족극과 예술운동』 창간호, 민족극연구회, 1992.
 김성진, 「삶과 노동의 놀이」, 『문학과 예술의 실천논리』, 실천문학사, 1983.
 김재석, 「<일체면회를 거절하라>와 30년대 풍자극」, 『송영』, 한국극예술학회 편, 태학사, 1996.
 김재석, 「마당극 정신의 특질」, 『한국극예술연구』 제16집, 2002.
 김재석, 「<원귀 마당쇠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21집, 한국극예술학회, 2005.
 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9.

김현민, 「1970년대 마당극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2.
 동일방직 복직투쟁 위원회 엮음, 『동일방직 노동조합 운동사』, 돌베개, 1985.
 라원식, 「80년대 노동현장 문화예술활동의 궤적」, 『문학예술운동』 3호, 풀빛, 1989.
 박인배, 「문화패 문화운동의 성립과 그 향방」, 『한국민족주의론』, 창작과 비평사, 1985.
 박인배, 「공동체 문화와 민중적 신명」, 『민족과 굿』, 학민사, 1987.
 배선애, 「1970년대 마당극의 양식 정립과정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18집, 한국극예술학회, 2003.
 석정남, 『공장의 불빛』, 일월서각, 1984.
 송동준 외, 『브레히트의 서사극 유형적 고찰』,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심우성, 『한국의 민속극』, 창작과 비평사, 1975.
 이영미, 「마당극 양식의 원리와 특성」,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1996.
 임진택, 「새로운 연극을 위하여」, 『민중연희의 창조』, 창작과 비평사, 1990.
 정지창, 『서사극 마당극 민족극』, 창작과 비평사, 1988.
 조동일, 『탈춤의 역사와 원리』, 기린원, 1995.
 피터뤼츠, 조상용 역, 『드라마 속의 시간-극적 긴장 조성의 기법』, 들불, 1994.

43) 김재석, 「마당극 정신의 특질」, 『한국극예술연구』 제16집, 2002, 346면.

Abstract

Settle Dongil textile company's affairs

Im, Ji-hee

“Settle Dongil textile company's affairs” performed by its fired laborers in 1978, represents a democratic labor against the dictatorial military government. It is believed to be “first for a labor movement.” “Settle Dongil textile company's affairs.” Laborers fired by Dongil textile company was treated unfairly, but naturally the case was covered up by suppression of the press acted by the dictatorial military government in those days.

As fired laborers had been trying to tell the public their unfair treatment in the most effective way, they chose the play. The play initially focused on disclosing the social contradiction done by the ruling class. They used dramatic devices of “the role exchange”, “chorus” and “narrator” to reveal a clever oppression against laborers by the ruling class. These dramatic devices gave an audience the exact understanding of the ruling class. The exposure to the contradiction done by the ruling class caused the same sense with audiences. This same sense aimed for the union of laborers and audiences. Laborers' unified will was expressed in the state of a struggle against hostile contradiction.

This play is full of in that laborers themselves lead a field labor movement through situational truth of “Madang play” which represents the feelings of the public.

Laborers, who had been onlookers in the play, strived to deal with the current affairs with the public through a affirmative play. “Settle Dongil textile company's affairs”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play of all the play for a labor movement.

Key words : labor play, Dongil textile, role exchange, chorus, narrator

접 수 일 : 2010년 8월 31일

심사기간 : 2010년 9월 1일~9월 30일

게재결정 : 2010년 9월 30일